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강한 소비지출 불구하고 GDP 약간 하향조정

[미국 금융]

- FinancialYahoo: 미 증시 하락 거래...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앞두고
- WSJ: 비트코인 6만불 진입... 올해 40% 이상 상승

[주택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 7% 상회로 미 주택 구매수요 1995년 이래 거의 최악

[물류]

- WSJ: 글로벌 해운선사들, '동맹관계' 만든다

[에너지]

- CNBC: OPEC+가 감산 연장 고려하면서, 유가 소폭 상승

[전기차]

- TechCrunch: 애플,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 취소하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 Business: 미국 백화점들, 쇠퇴하고 있다
- Bloomberg: 웬디스, "버거와 프로스티 가격 급등 없을 것"
- CNBC: 미국 소상공인의 대다수는,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
- WSJ: 출신 늦어진 테슬러 '로드스터' 내년에 나온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GDP Revised Slightly Lower Despite Stronger Consumer Spending

미 강한 소비지출 불구하고 GDP 약간 하향조정

- 미 경제가 강한 가계지출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작년말에 약간 느린 속도로 확장되었다.
- 4분기 GDP가 연율로 3.2%로 수정되어 이전 추정치인 3.3%보다 성장속도가 약간 둔화되었다. 소비자 지출은 당초 추정치보다 약간 빠른 3%로 증가했다. 이는 연방경제분석국의 수요일 발표에 따른 것이다. 인플레이션은 당초 추정보다 상향 조정되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**FinancialYahoo: US stocks slip in cautious countdown to PCE print as bitcoin soars past \$60,000****미 증시 하락 거래...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 앞두고**

- 오늘 수요일 미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인플레 보고서가 내일 금요일 발표될 상황에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.
-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트 지수는 각각 0.5% 이상 떨어졌고, S&P500지수도 0.3% 하락했다.
- 바로 최근 인공지능의 기대감에 상승한 증시가 지속적인 고금리의 현실로 돌아오면서 고전하고 있다.
- 투자자들은 내일 금요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연준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하할 지 예의 주시 하고 있다.

FinancialYahoo 기사

WSJ: Bitcoin Surges to \$60,000 With Enthusiasts Eyeing Record Highs
비트코인 6만불 진입... 올해 40% 이상 상승

- 비트코인이 지난 2년이상 만에 처음으로 6만달러로 상승했다. 이같은 수요가 비트코인 애호가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올해들어 이미 40% 이상 급등한 이유는 지난 1월 11일 거래를 시작한 60억달러 이상의 미 관련 상장지수펀드의 출시에 힘입은바 크다 할수 있다.
- 비트코인은 같은 달에 사상 최고치인 6만9천불로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2021년 11월에 6만달러에 거래되었다.

WSJ 기사

[주택]**Bloomberg: US Home-Buying Demand Nears Worst Since 1995 With Rates Above 7%****미 모기지율 7% 상회로 미 주택 구매수요 1995년 이래 거의 최악**

- 미 주택 구매 신청 건수가 5주째 하락하고 있다. 모기지율이 7% 이상 상회하면서 구매 신청건수가 지난 1995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.
- 은행모기지협회의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 지수가 2월 23년에 끝나는 주에 4.5% 하락했다. 127.6을 기록한 이 지수는 거의 30년만에 최저치였던 지

난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 주택 시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

WSJ: Global Shipping Lines Extend Vessel-Sharing Agreement 글로벌 해운선사들, '동맹관계' 만든다

- 여유로운 선복량과 낮은 운임으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 해운사들이 동맹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. 4 곳의 아시아 그리고 유럽 컨테이너 선사가 선박 공유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.
- 이들 기업은 Cosco Shipping, CMA CGM, Evergreen Marine 그리고 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이다.
- 한편, Maersk와 Hapag-Lloydsms 지난 1월에 새로운 해운동맹 관계를 맺을 것이라 밝혔으며, 이에 따라 Hapag-Lloydsms는 2025년 한국의 HMM, 싱가포르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, 대만의 양망이 포함된 해운 동맹에서 탈퇴한다.
- 이번 재편은 해운사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에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보인다.

WSJ 기사

[에너지]

CNBC: Oil prices inch higher as U.S. crude inventories rise, OPEC+ considers extending production cuts OPEC+가 감산 연장 고려하면서, 유가 소폭 상승

- 오늘 수요일,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, OPEC+가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할 것을 고려하면서, 원유 선물이 상승했다.
- 4월물 텍사스 중질유가는 28센트 상승한 배럴당 79.15달러를, 같은 달 브렌트유는 30센트 상승한 83.9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.
- 미국석유협회(API)에 따르면,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주 8백40만 배럴까지 상승했다.
- 이번 주에 발표된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, OPEC의 감산으로 인해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70~90불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

CNBC 기사

[전기차]

TechCrunch: Apple cancels its autonomous electric car project and is laying off some workers**애플,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 취소하다**

- 애플이 어제 화요일 아침에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.
- TechCrunch는 애플이 전기차 관련 수백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,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
- 이번 중단 결정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고,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.

TechCrunch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N Business: How America's once great department stores became a dying breed**미국 백화점들, 쇠퇴하고 있다**

- 어제 화요일, 메이시스가 전체 매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백50개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. 이는 한때 잘나가던 백화점 업계가 쇠퇴한 결과다.
- 이 원인에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, 온라인 쇼핑이다. 또 다른 문제는 저렴한 제품에 초점을 맞춘 월마트 같은 업체와 고급 브랜드 기업들은 상황이 좋지만,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은 어렵다는 것이다.
- GlobalData의 소매업계 분석가인 Neil Saunders는 이런 현상이 놀랍지 않으며, 앞으로 10년 이내에 더 많은 백화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 말했다.
- 그의 분석에 따르면, 미국의 백화점의 전체 소매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. 또한 리서치 기업인 Coresight Research은 2018년 미국 백화점의 총 매출은 1천 3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백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다.

CNN Business 기사

Bloomberg: Wendy's Says No 'Surge Pricing' on Burgers and Frostys After Public Outrage**웬디스, “버거와 프로스티 가격 급등 없을 것”**

- 웬디스가 이달 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가오는 다이내믹 프라이싱(dynamic pricing) 테스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.

- 이 프로그램은 매장의 디지털 메뉴판에 대해 2,000만 달러 투자의 일환인데, 웬디스가 더 유연하게 추천 품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.
- 하지만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바쁜 시간대에 가격을 인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A majority of America's small business owners support minimum wage increase, even as they worry about worker affordability.

미국 소상공인의 대다수는,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

- SurveyMonkey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대다수(61%)가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만, 절반(50%)은 사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미국 내 3천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한다는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준다.
-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,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불확실한 모습을 보였다.

CNBC 기사

WSJ: Elon Musk Says Long-Delayed Tesla Roadster Coming Next Year

출신 늦어진 테슬라 '로드스터' 내년에 나온다

-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계속 출시가 지연된 전기 스포츠 차량인 로드스터가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그는 이번 스포츠 전기차량 디자인은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연말에 공개될 것이라는 것.
- 이 차량의 특징은 1초내에 시속 60마일까지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보먼 연준 이사 "지금 금리인하는 너무 이르다"

블룸버그, 연준 금리인하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 전망

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이사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지금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.

28일(이하 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먼 이사는 27일 플로리다 은행가 협회 연설에서 "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"이라면서 "아직 그 시점에 이르지는 않았다"고 말했다.

그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위해 여러 자료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갈등이나 금융 여건 완화, 탄탄한 노동시장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를 언급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